

통폐합돼야 할 건축사의 감리업무

Architect's Supervision must Rearrange

尹汝旭/종합건축사사무소 도심환경

by Yoon, Yeo-Wook

문명의 발달과 함께 건축물도 시대를 반영하듯 대형화, 고층화, 고품질화 되어 가고 21세기 주도권확보를 위해 민, 관 구분없이 고도의 정책수립과 시행으로 분주하며, 감리업계의 선도를 위해 정부산하 투자기관에서 재벌회사들의 종합감리전문회사를 설립토록 정부가 관심을 갖고 부실공사의 복합적 관행을 근절시켜 나가도록 한다고 한다.

앞으로 10년동안 집을 지어야 할 택지가 1억2천만평 필요하고 기존 도시에 약 7배 정도의 수요가 늘어난다고 추산하고 있다.

수평적 요소의 한계성을 넘어 지하도시개발에 토지이용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를 하지만 택지위 건축물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요구하는 대책과정에 따라 설계와 감리 연구를 전개하고 특히, 새로이 감리를 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튼튼히 다져야 할 입장이다.

감리란 무엇인가?

최근 우리들은 설계만큼 더 중요한 의미에서 많은 물음을 끌어내고 있다.

훌륭하게 건축되는 것은 설계와 감리역할도 중요하지만 건축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諸)규정을 알고 준수함으로써 비로소 건축된다고 할 수 있으며, 눈부시게 복합화되는 건설환경에 우리들로서도 지금껏 감리역할이 그대로 방치되었던 것과 설계보다도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이제는 제2의 조형과 기술의 수단으로 위상을 옮기려하는 건축화의 꿈틀거림이 감리방향 설정 및 책임과 한계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20일 협회 강당에서 토론회를 가졌었다. 지난날을 반추해 볼 때 우리들은 감리 역할에 무관심으로 지내왔었고, 스스로의 감리 기술에 완전히

통달한 사람보다는 관심과 노력이 없는 방조자로서의 길을 걸어왔음이 사실이다. 때때로 우리는 감리를 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며, 그 이유는 아무 준비와 훈련이 없는 운동선수와 다를 바 없다.

노련한 사격선수의 금메달은 감독, 코치에 의해 피나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얻어지듯이 경험이 없는 우리들의 감리역할은 메달권밖에 있는 선수나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이번 토론회로 건축감리의 개념과 정의부터가 뚜렷하지 못하고 적절한 용어 난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볼 때, 그 책임과 한계의 명확한 설정을 논하기 이전 관계제도를 살펴보면,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련법, 종합건설업 면허제도법, 건설업법, 주택건설촉진법, 기타관련법,령규칙 감리에 관한 직, 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관련 제도를 통폐합하여 감리는 분명히 건축사의 고유의 업무라고 하는 독립된 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분명히 감리는 전문가가 아닌 재벌회사의 손에 맡겨진다면 건축문화는 어두운 영역으로 사라지고 인류의 역사과정의 시간과 공간은 커다란 과실과 와해로 나타날 것이며, 창조라는 흐름이 수시대를 거쳐 인간의 근원적 작업의 완전함과 풍부한 상상력이고 보면 건축행위는 우주심미에서 생명의 원천을 찾고 불가능의 속에 들어가 살을 깎고 수없는 투쟁으로 미지의 것이 진실과 현실로 나타날 때 창조의 수단으로 될 수 있는 것인데, 하나의 단순한 작업의 부속물로 생성되어질 때 그 의미를 부여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것이다.

분리감리는 감리자가 자기몫을 지키고 설계 따기 위한 온상화지대가 되었고, 전문 감리는 특정한 건축사의 울타리 확보를 위하여 21세기의 기업의 재원으로 축적을 삼고 있는 실정이다.

“

현대건축은 불합리한 작업들이 태연하게 표출되고 이미 건축감리의 한부분이 떨어져나가 건축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모든 감리의 공통대상으로 공감하지 못하여 우리에게 긴장감으로 위험한 상태로 좁아들고, 감리전문회사 소속 감리원들은 그 기법을 개발하고 결과로 나타난다고 볼 때 우리들은 준비 이전에 무책임한 탓으로만 볼 수 없는 수단이 아닐까 뜻하는 바이다.

나 아닌 우리의 경제적 고통이 일시적인 손해를 보는 것 같으면서도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큰 이익 즉, 나무보다는 숲을 위해 적은 것은 희생되어야 할 스스로의 탈바꿈이 필요한 오늘의 입장이다.

”

「무당도 혼자 굶을 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 거대한 경제구조의 숲이라 할 감리가 회원간에 의견이 각기 다른 욕구로 중첩되고 갈기갈기 찢어지고 분열되고 있는 것이 한심스럽고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

현대건축은 불합리한 작업들이 태연하게 표출되고 이미 건축감리의 한부분이 떨어져나가 건축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모든 감리의 공통대상으로 공감하지 못하여 우리에게 긴장감으로 위험한 상태로 좁아들고, 감리전문회사 소속 감리원들은 그 기법을 개발하고 결과로 나타난다고 볼 때 우리들은 준비 이전에 무책임한 탓으로만 볼 수 없는 수단이 아닐까 뜻하는 바이다.

나 아닌 우리의 경제적 고통이 일시적인 손해를 보는 것 같으면서도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큰 이익 즉, 나무보다는 숲을 위해 적은 것은 희생되어야 할 스스로의 탈바꿈이 필요한 오늘의 입장이다.

예컨대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자면, 첫째, 국내외 현대건축의 관계나 작가 작품을 계통적으로 수집하고 아울러 감리 및 감정관계자료 보급 둘째, 외국의 감리와 연관되는 법과 제도 규정을 수집하여 보급 셋째, 현대건축 흐름을 전망할 수 있는 교육적 내용을 계통적으로 보급 넷째, 학교 및 실무교육과 감리훈련 방안 대책으로 시공 전과정을 이해 못하고 현장감 결여로 미비한 교육적 내용을 보급 다섯째, 감리 경영 관리와 품질관리를 가능토록 유지관리업무를 보급 여섯째, 감리기록을 문서화하고 승인절차에 기술적 행정과제의 체계화를 보급 일곱째, 건설환경을 위한 현황과 대응에 관한 과제들을 계통적으로 보급한다.

아울러 감리기술개발 지원 방안으로 협회는 공인될 수

있는 가칭 감리품질관리기구(시험소), 감리교육훈련연구기구, 분쟁조정기구 등을 설치하고 자료와 기술보급에 앞장서야 되겠다. 편협된 이기심에 빠져 외부에서 집단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객관적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겠지만, 생존권 차원에서 우리의 권익과 정당한 요구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용기가 협회차원에서 절실하다. 다행히 최근 정부관계자로부터 여건조성의 터를 만들어 주겠다는 언질이 있었고 만약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의 권리가 커진 만큼 책임감 또한 막중함을 알고 철저한 직업윤리로 무장해야겠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적당한 직업윤리를 주장한 반면 칼빈은 직업을 절대적 천직으로 여기는 주장을 하여 혁신적이긴 하였지만 오늘날 자본주의에 도전의 등장으로 다소 상반된 주장으로 받아들여진다.

건축사의 직업이 고도의 기술과 숙련을 요하는 화이트 컬러로 불려질 때 건축사의 자격과 명예 그것은 공동생활로 합류할 때만이 비로소 지켜지는 것이라 여겨진다.

감리의 성격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건축사 자신이 설계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능·구조·미의 건축이념과 「출자」「관리」「운영」하는 삼위일체의 유일한 협동(Cooperation) 정신이다.